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 대비 5.10원 하락한 1,110.0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역외 매도와 네고물량에 전 거래일 대비 5.10원 하락한 1,110.0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전 거래일 대비 0.90원 상승한 1,116.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상승폭을 축소하며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달러-위안 환율이 6.58위안대로 하락하고 네고물량과 역외 달러 매도가 나온 영향을 받았다. 오후에는 코스피 상승세에 위험선호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10원 하락한 1,110.0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053.13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6.50	1116.50	1109.20	1110.00	1112.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57.74	1061.42	1051.24	1051.5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16.78	1320.68	1303.46	1307.6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5	-0.42	-1.17	-2.03
	결제환율(수입)	0.22	0.67	1.08	1.0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1,110원대 초반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10.00원) 대비 3.30원 오른 1,113.5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뉴욕주가 부분적인 락다운 조치를 재개하고 독일 총리가 지난 봄보다 전염병 확산 충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4분기 경기부진 우려가 재부상하여 상승이 예상된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를 견인한 가운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 간밤 달러 인덱스가 93선 이상으로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 환율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 최근 급격한 달러-원 하락세와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 1,100원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 네고, 기술주 중심의 위험선호 심리 지속, 외국인 국내증시 순 매수세에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9.75 ~ 111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162.3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30원 ↑
	■ 美 다우지수 : Holyday((FX, FI) Veterans Day)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8.3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44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